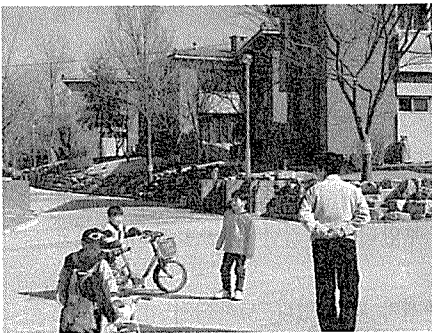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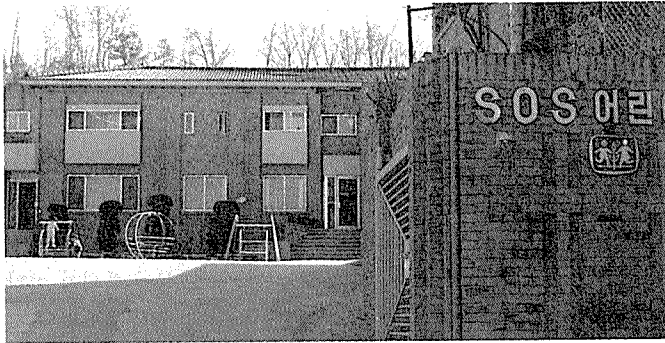




“사회의 어른들은, 버려진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줘야 합니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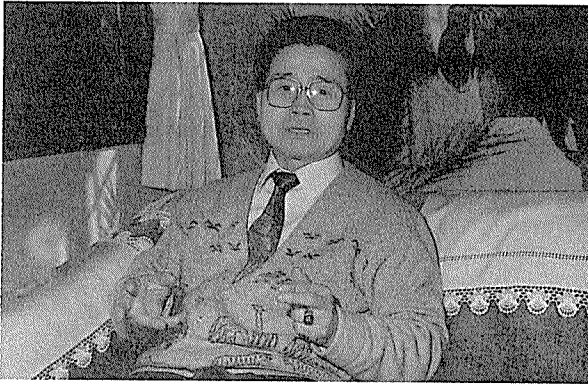
## 고아들에게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“한국 SOS 어린이 마을”을 아십니까?



자신에게 부모·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느껴 본 적이 있을까? 어쩌보면 아주 당연한 이 사실이 간절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다. 어떤 이유에서건 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밖에 없는 많은 아이들에게 이 당연함이 곧 최대의 희망인 것이다.

이런 아이들에게 어느 가정과 다를 것 없는 애정을 주는 곳이 SOS어린이 마을이다. 형식에서부터 실제 내용까지 정말 가정적인 이 마을은 그래서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다른 점이 많다.

다른 복지시설도 SOS마을과 같은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, 우리가 버린 아이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거두어 주는 SOS마을을 소개한다.



가족이 없는 아이들에게  
가족 속에서  
자라나며  
따뜻한 사랑을  
느끼게 해주는 것이  
SOS 어린이마을의  
설립취지라고  
설명하는  
김연호 서울SOS  
어린이마을원장

#### •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필요하다.

어린이들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의 사랑, 가정의 따뜻함일 것이다.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 혈액의 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. 부모의 사망, 경제적 어려움, 미혼모 출산, 무작정 가출 등등 그 사연은 참으로 다양하지만,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정 밖에서 존재하는 또 다른 사회의 구성원이며 사회는 또 그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.

“책임”이라는 단어와 함께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이다. 고아원, 즉 사회복지시설이 그것이다. 그러나 이 시설들은 아이들의 의식주는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가정의 포근함을 느끼게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.

이런 측면에서 SOS어린이 마을은 이들 사회복지시설과는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. 이곳은 명칭에서부터 “OO원”이 아니라 “마을”이다. 이 마을의 구성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, 마을은 10~15세대에 가정으로 구성되며 한 가정은 한명의 어머니와 7~8명 정도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. 자녀들은 물론 연고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사연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아이들이다.

그렇다면 이 가정의 중심인 어머니, 아이들의 따뜻한 사랑의 모체인 어머니는 누구일까?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이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할 것을 결심한 여인들이다.



자녀들의 결혼, 취직, 입학 등이 가장 커다란 행복이라고 김원장과 마을 어머니들은 이야기한다.

• 사회는 버려진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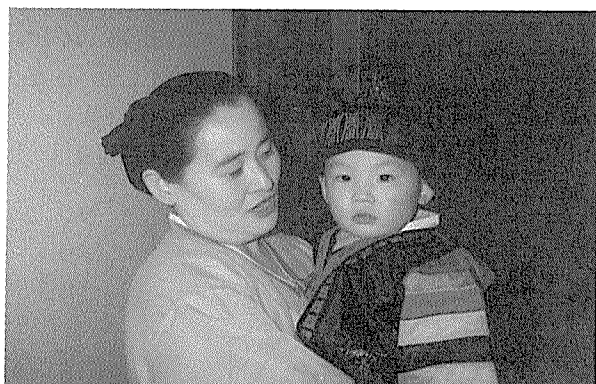
『45년전 헤르만 그마이너라는 오스트리아인에 의해 만들어진 이 SOS 마을은 전 세계적으로 121개국에 1000개가 넘는 시설을 가진 민간 아동복지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31년 전에 대구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서울, 대구, 순천에 마을이 있고 총 45가정에 450여명 정도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.』

아이들의 유일한 아버지이자 촌장인 서울 SOS 마을 김연호 원장의 설명이다. 서울 마을이 만들어진 13년 전부터 이들과 함께 해 온 김원장은, 『우리 주변에는 가정적 애정이 결핍된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만, 이들을 고아로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. 사회의 어른들은 누구나 이들의 부모가 되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.』라고 강조한다.

• 대학진학, 유학, 취직, 결혼도 돌봐주는 정말 내 가족

정부의 지원, 후원금, 외국후원(국제 본부로부터의 지원)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이 마을은 또, 기존의 수용시설이 만 18세만 되면 아이들을 사회로 내보내는 반면에 그들의 학업은 물론 결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.(물론 18세 이상의 아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끊긴다.)

이곳의 아이들 중엔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간 사람들도 있고, 능력 개발을 위한 재능교육도 어느 가정과 다를 것 없이 실시한



이땅의 어린이는  
모두 우리의  
형제·자매이다.  
내 이웃에  
불행한 사람이  
있는 한  
나는 결코  
행복한 사람이 아니다.

다. 누구나처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기도 하고, 또 결혼을 해 그들의 진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기도 한다.

•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, 사라져야 한다.

결혼을 한 자녀들이 자신들의 아기를 안고 명절에 찾아오거나 누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,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등등 아이들이 잘 되었다는 얘기를 접할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는 김원장과 각 가정의 어머니들의 소박한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.

그러나 이들에게도 아픔은 있다. 다른 가정과 다를 것 없이 키워낸다고 해도 “사회적 편견”, 즉 고아라는 사실로 인해 때때로 받아야 하는 눈총은 다른 복지시설아동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. 김원장은 이렇게 말한다.

『고아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아서는 안됩니다. 가정이 있는 아이들보다 더 깨끗하게 세파를 헤쳐 나왔는데 오히려 격려를 해 주어야지요. 우리 아이들을 소외시키는 것은, 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“사회”입니다. 이제 편견은 사라져야 합니다.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. 인간은 모두 평등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?』

사진기 앞에 얼굴을 들이대며 한장 찍어 달라는 아이들의 티없는 모습을 보며, 김원장의 확신에 찬 마지막 말이 귀에 쟁쟁하다.

『이땅의 어린이는 모두 우리의 형제·자매입니다. 내 이웃에 불행한 사람이 있는 한 나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.』